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You are free to :

- **Share** — copy and redistribute the material in any medium or format

Under the following terms :



Attribution — You must give [appropriate credit](#), provide a link to the license, and [indicate if changes were made](#). You may do so in any reasonable manner, but not in any way that suggests the licensor endorses you or your use.



NonCommercial — You may not use the material for [commercial purposes](#).



NoDerivatives — If you [remix, transform, or build upon](#) the material, you may not distribute the modified material.

You do not have to comply with the license for elements of the material in the public domain or where your use is permitted by an applicable exception or limitation.

This is a human-readable summary of (and not a substitute for) the [license](#).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모델들의 비판적 재검토
-대안적 접근의 제시-

A Critical Review of the Primary Models
Related to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s Central Region: presenting an
alternative approach

2015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전공

Hari Blackmore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모델들의 비판적 재검토

-대안적 접근의 제시-

지도교수 김 종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전공
Hari Blackmore

Hari Blackmore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7월

위원장 이 선 복

부위원장 김 종 일

위 원 김 장 석



국문초록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모델들의 비판적 재검토 -대안적 접근의 제시-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이해와 논쟁은 '중도유형문화' 모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으며, 이 모델을 거부한 연구자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중도유형문화' 모델의 핵심 추론 중 하나는 중부지방 내에 고고학적으로도 보이는 명확한 민족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족'이 한성백제가 등장한 한강 중-하류 지역에 거주했고, '예(맥)족'이 이 북쪽과 동북쪽에서 영동지역까지 존재했다는 추정이다. 전통적으로 이 두 집단은 특정한 물질문화 복합체를 통해 확인되는 서로 다른 '고고학적인 문화(archaeological culture)'와 연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기존 모델들의 비판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사용되어 온 '고고학적인 문화'와 '민족성'의 정의에 심각한 이론적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역사문헌에 대한 교조적 이해에 기반해 아무런 근거 없이 기원후 3세기의 기록들이 기원전 1세기에 적용된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들은 과거 사람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캐리커처(caricature)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도유형문화' 모델이 이후에 이루어진 담론의 틀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과 결론에도 지나치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즉, 그것으로 인해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작업보다는,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작업이 우세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기존과는 다른 문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물질문화의 제작이나 건축적 전통, 그리고 건축이나 취락 내의 공간배치와 활동영역을 강조한다. 즉, 인간행위에 집중한다. 고고학자들은 맥락적, 다변수적, 그리고 관계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두 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이 접근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i) 마연조정 경질무문토기의 분포에 있어서凸자형 건축과 ㄹ자형 건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ii)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의 경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들시설의 사용패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추론은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가설들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어 : 원삼국시대 ; 중부지방 ; 중도유형문화 ; 맥락적 접근 ; 관계적 접근 ; 凸-ㄹ자형 건축

학 번 : 2013-22432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 II 장 원삼국시대 중주지방의 연구사.....	3
제 III 장 기존 모델의 검토	8
제 1 절 문화의 개념	9
제 2 절 '체크리스트(checklist)' 접근	12
제 3 절 역사기록에 대한 이해	19
제 4 절 민족성에 대한 이해	22
제 IV 장 고찰과 대안	26
제 1 절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	26
제 2 절 맥락적이고 관계적인 방법론.....	28
(1) 사례 연구 1: 마연조정토기의 맥락적 검토	32
(2) 사례 연구 2: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의 구들 사용방식	36
제 3 절 문화에 대한 다른 이해	39
제 V 장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55

표 목차

[표 1] 각 건축적 맥락에 따른 마연조정 경질무문토기의 평균 량.....	33
[표 2] 각 건축적 맥락에, 마연조정이 있는 경질무문토기의 비율.....	34
[표 3] 건축별의 한(漢)식이나 낙랑(계)토기의 상대적인 비례	35
[표 4] 한(漢)식이나 낙랑(계)토기와 마연조정토기의 공반 비교	35

도면 목차

[도면 1] 연해주의 건축은 중부지방 건축과 뚜렷이 상이하다	14
[도면 2] 중부지방에 일반적으로 발견된 건축 형태와 그 기본단위의 예시	15
[도면 3] 풍납토성과 다른 중부지방 유적의 건축 기본단위	16
[도면 4] 구들시설이 있는 건축과 구들시설이 없는 건축의 기본단위	16
[도면 5] 풍납토성과 다른 중부지방 유적의 중앙노지시설 위치	17
[도면 6] 풍납토성과 다른 중부지방 유적의 구들시설 아궁이 위치	17
[도면 7] 구들시설이 있는 유적과 구들시설이 없는 유적의 중앙노지 위치	17
[도면 8] 각 건축형태에 경질무문토기 중의 마연조정된 토기 상대 비례	34
[도면 9-i] 풍납토성에, 각 건축형태으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37
[도면 9-ii] 풍납토성에, 건물 크기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37
[도면 10-i] 가평 대성리 유적에, 각 건축형태으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37
[도면 10-ii] 가평 대성리 유적에, 건물 크기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37

I. 서론

원삼국시대에 들어와 한반도 중부지방에는 '중도유형문화' 라고 불리는 문화가 등장한다(박순발 1996). 이 '문화'는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련의 특수한 요소들을 통해 정의된 바 있는데, 공반되어 나타나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및 회흑색무문양토기, 凸/뿔자형 건축물, 그리고 좁석식 적석분(박순발 1996, 2001a)이 그것이다. 물론 '중도유형문화'의 이런 정의를 수용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요소들 중 일부의 핵심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노혁진 2004; 유은식 2006; 박종국 2012). 중도유형문화는 서울-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분포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며(유은식 2006; 권오영 2009, 2010; 이승재 2009; 박종국 2012), 이런 차이를 역사적 실체인 '한(韓)'과 '예(濊)'와 연결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박순발 1996, 2001a; 유은식 2006; 박종국 2011, 2012). 여하튼, 중도유형문화가 중부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범중부지역 고고학적 문화'(pan-regional archaeological culture)라는 인식은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오영 2010; 박종국 2012).

'고고학적 문화'(archaeological cultures)를 확인하고 그의 분포와 전개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문화사적 접근의 주요한 부분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Trigger 2006) 한국고고학에도 이 접근은 우세하다(고일홍 2012; Bale 2014). 사실, '한민족'의 기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한국고고학에서 문화사적 접근이 가장 적절한 이론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장된 바 있으며(김원용 1986; 최성락 2005), 그것이 한민족의 '연표'를 제작하는 데에도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김원용 1986). 즉, 한국고고학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일 2008).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현재까지의 이해는 위와 같은 접근에 기반하여 세워졌으며, 특히 '중도유형문화 모델'(박순발 1996, 2001a)을 통해 이 문화의 광범위한 분포양상과 이런 '고고학적 문화'와 결부된 민족집단의 구분에 관한 개념들이 설정되었다. 이런 노력은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한 장기간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청동기시대로까지 이어진다.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에 관한 이런 초기의 개념들과 문화사적 접근은 이 시대에 관한 연구작업의 디자인이나 결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논문의 핵심적 목적 중 하나는 기존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그간 사용되어왔고, 또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모델들이 어떠한 이론, 방법론, 그리고 논리를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평가를 통하여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기존의 모델들은 과거의 현실에 관한 '캐리커처'(caricature)만을 그려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모델들은 과거 삶의 전통과, 사람들의 실제적 행위나 정체성을 참고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것은 과거를 반영하기 보다는 '현재'의 방법론이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슈를 더 깊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더 세련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민족성'과 같은 개념들의 유연성을 인정하면서, 반복적인 생산활동과 생활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필자는 기존의 이론적 작업이나 원삼국시대 중부지역 물질문화의 몇 가지 측면을 통해 '문화'를 검토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곧 맥락적이고 관계적(relational) 접근이다. 결국, 특수한 그룹이나 '민족'의 기원과 이동을 확인하는 접근에서부터 한 발자국 나아가, 이 과거 집단들과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II.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연구사

1990년대부터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 중에는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에 어떠한 '고고학적 문화'가 존재했는지를 탐색하고 그것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탐구하는 모델이 몇 개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논쟁들은 토기편년(박순발 1989, 1992, 1993, 1997, 2001a, 2001b, 2004a, 2005, 2009; 오세연 1995; 김장석 2009, 2012, 2014; 김성남 2004; 이준호 2009; 권오영 2011; 최병현 1998; 한지선 2005, 2013; 이승재 2009; 김일규 2009), 건축양식이나 내부시설에 입각한 편년(송만영 1999, 2009, 2013a; 홍지윤 외 2008; 박중국 2011), 경질무문토기의 계통(박순발 1993, 2004b; 최병현 1998; 노혁진 2004; 유은식 2006, 2009; 강인욱 2007, 2009a; 심재연 2007a, 2011), 타날문토기의 계통(최병현 1998; 김장석 2009, 2012; 정인성 2011; 심재연 2011), 그리고 취락구조(송만영 2010a, 2013a, 2013b; 박경신 2012)와 같은 문제들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은 이 논문의 핵심이 아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사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문화와 사회에 관한 제시되었던 모델에 관한 것이다. 이 검토를 통해 '중도유형문화' 모델, 그리고 그와 비슷한 모델들이, 과거의 현실을 적절하게 서술한 것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만약 아니라면 그와 같은 범지역적인 고고학적 문화의 설정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개념과 방법론의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박순발(1996)이 제시한 '중도유형문화'는 한반도 중부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유물, 건축물, 그리고 장례양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고고학적 문화'(박순발 1996: 171) 것이다. 이 유물들과 건축물들은 중부지역 전체에서 발견되지만, 좁석식 적석분은 임진강 유역, 한강 중·상류 지역, 그리고 북한강 및 남한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다. 박순발(1996, 2001a)은 이 차이가 역사적 실체로서의 '한' 집단과 '예(계)' 집단의 경계를 표시한다고 가정했다. 즉, 좁석식 적석분은 중도유형문화의 지표가 되고, 이곳은 이 무덤이 나타나지 않는 한강유역과 대조를 이룬다. 두 지역에 거주했던 집단을 각각 확인하기

위해 『三國史記』를 참고하여, 그곳에 등장하는 북쪽이나 동북쪽에서 '예'·'예맥'이나 '말갈'이라는 사람들이 백제영토에 침입했다는 백제본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런 구분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순발 1996, 2001a). 즉, 좁석식 적석분의 분포가 『三國史記』에 저술된 예(계) 민족의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의 지표라는 것이다.

이렇듯 민족이나 문화의 영역을 확인하는 작업은 오늘날 한국인의 '조상'으로 인식되는 '한민족'의 기원과 이동경로, 그리고 영토를 추적하고 확인한다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김원용(1986)의 '연표'적 접근이나 '한' 집단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패러다임과 일치하다. 이 논리의 일례로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옹의 기원을 통해 중부지방과 서북한반도를 연결시키는 박순발(1993, 2004b)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외반구연옹의 기원을 통하여, 중부지방과 서북한반도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경질무문토기 계통이 고조선문화와 관련이 있는 대동강유역의 명사리식 외반구연토기라고 본다(박순발 2001a). 그리하여 낙랑군의 설치 및 고조선의 멸망으로 발생한 유이민 집단의 행로와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다(박순발 2001a).

이 시발점에서부터,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들도 다른 고고학적 지표를 통해 '한'과 '예'의 구별을 시도했다. 예를 들면, 박순발(1996, 2001a)의 중도유형문화 모델을 꼼꼼하게 비판하면서, 박중국(2011, 2012)은 여러 종류의 고고학적 요소를 고려한 결과, 사주식이 아닌凸-뿔자형 건축물을 의미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중도문화'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더욱이, 구들시설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며 이 것을 서쪽(서울-경기)의 한과 동쪽(강원도)의 예를 구분하는 지표로 결론짓고 있다.

유은식(2006)은 서울-경기 지역의 경질무문토기와 강원도 지역의 경질무문토기 사이에서 제작이나 조정방식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이 차이가 한과 예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은식(2007)은 경질무문토기의 특수한 형식들이 중부지방 내에 균질하지 않게 분포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예를 들면, '살짝외반'이나 '유경' 구연부의 경우 영동지역에서는 흔하게 보이지만, 영서와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다고 한다. 더욱이, 마연경질무문토기는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만구연형태도 강원도에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유은식(2006, 2007)은 이러한 분포양상들을 연해주 문화의 영향과 명백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①, 이는 곧 암묵적으로 이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예 집단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같다.

사실은, 강인욱(2007, 2009a)과 다른 연구자(예를 들어, 노혁진 2004; 유은식 2006, 2009; 심재연 2007a)들도 연해주의 물질문화, 특히 꼬로우노브까문화가 경질무문토기문화의 발달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연해주 문화의 역할에 관한 가설로는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동해안을 경유한 집단이주(노혁진 2004), 이주민과 중부지역 재지집단의 점진적인 통합과 연해주 물질문화의 채택(강인욱 2009a), 그리고 이주 없이 연해주 물질문화의 채택(심재연 2008)에 관한 가설들이 있다. 연해주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토기의 유사성뿐만 아니라,凸-뿔자형 건축(노혁진 2004; 강인욱 2007; 2009b)과 생계경제에 관한 데이터(강인욱 2009a; Subbotina 2007, 2009)도^② 제시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가설들은 중부지방의 동쪽 지역이 '예'나 '예맥' 집단의 영역이라는 관념과 뚜렷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강인욱(2008: 73)은 '옥저-읍루로 대표되는 환동해 지역의 비슷한 고고학적 문화를 영위하는 문화권^③'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 문화권에는 강원도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두만강유역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원삼국시대 중부의 지역성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한반도 동해안을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된 '동해(East Sea) 오이쿠메네(oikumene)'에^④ 포함시킨 아이켄스 외(Aikens et al. 2009)의 가설이 그것이다. 이 가설은 역사적 집단이나 민족으로 직접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 따로 논하도록 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① 영동-영서지방의 경질무문토기 제작과 조정 방식이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서 연해주와 더 비슷하다는 결과도 있다(유은식 2006).

② 영동-영서지방과 서울-경기 지역 사이에 생계경제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안승모(2013)과 이준정(2013)을 볼 것.

③ 이 것에는 한반도의 동해안 거의 다 펼쳐는 '무문토기 문화권'을 포함한다.

④ 'Oikumene'는 고대 그리스어의 'oikos'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Oikos는 '주거지'를 뜻한다.

영동-영서지방과 연해주 지역은 분명히 관계를 맺어 왔다. 왜냐하면 동해 오이쿠메네는 연해주, 한반도 동해안, 그리고 일본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아이켄스 외(Aikens et al. 2009)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아주 장시간(구석기~삼국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동해안을 포함하는 독특한 '상호 작용 문화권'(cultural interaction sphere)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것을 고대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서쪽 지역과 대비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아이켄스 외(Aikens et al. 2009)는 여러가지 물질문화 요소들(토기, 석기, 청동기, 철기 등)의 형식적 비교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동해 오이쿠메네' 개념은 강인욱(2008)이 제안했던 '문화권'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즉, 후자는 장기적으로 유지된 전자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연해주와 강원도의 물질문화 사이에 유사성이 분명히 있고, 고대중국의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민족 집단들의 이름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둘을 동일한 계통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후술할 것처럼,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민족적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 집단 예 집단 간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영(2009)은 목관(곽)묘를 한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지역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묘제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나 적석분이 있는 지역을 예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건축물의 평면형태(방형, 장방형, 5각형 등)와 그 출입구시설(부재,凸자형, 뿔자형)이 배타적으로 분포하고 있지 않아서 이 요소로 한과 예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또한, 권오영 2010). 송만영(2010b)은 대체로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 대부분의 원삼국시대 중부지방 건축물의 평면형태나 내부시설에서 규칙적인 분포를 볼 수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지역에 따라 한(漢)식 유물의 출토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심재연 2007b; 김일규 2009: 160-170; 박중국 2012: 78), 그리고 경질무문토기가 소멸한 시점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심재연 2009; 이성주 · 강선욱 2009)은 이런 전체적인 패턴들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송만영(2003)은 좁석식 적석분의 등장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대중국의 역사기록에 입각해서 서기

2세기 후기에 낙랑군에서부터 '한'과 '예' 영역으로 이동했던 집단들이 있었음을 밝혔다⁵⁾. 이 상황에서 기념비적 무덤의 조영을 특수한 하천유역(임진강, 북한강, 한강 중-상류 등)을 중심으로 특정 집단들이 교역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 영역은 '한예(맥) 정치공동체'의 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발달이 좁석식 적석분의 등장에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 가설이다(또한, 심재연 2010). 또한 송만영(2003)은 3세기에 중요한 교역로가 한강영역으로 옮겼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심재연(2010)은 한강 중-상류의 무기단식 적석총이 백제 고분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다면, 좁석식 적석분과 같은 묘제는 민족성의 지표가 아니라, 2세기 후기나 3세기 전-중기의 특수한 정치 및 권력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여기까지 언급한 모델의 기저에 있는 핵심적인 이론적 및 방법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즉, 이 모델들이 무슨 논리로 설정되었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모델들이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실제 역사적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검토결과의 함의의 대안적인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⁵⁾ 이 S.(Lee 2013)도 참고한다.

III. 기존 모델의 검토

위의 연구사를 보면, 박순발(1996, 2001a)의 '중도유형문화' 개념으로 부터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여러 개의 경쟁적인 모델들이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매우 비슷한 측면도 있다. 이 모델들에서는 민족 혹은 문화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고고학적 요소는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특정 물질문화를 민족적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과 문화에 대한 개념은 거의 동일한 것이다. 즉 이 모델들은 또한 물질문화의 분포를 통해 특정한 집단의 기원지나 영역을 확인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접근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고고학적 문화'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을 '문화사적 접근'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처럼, 박순발의 모델은 좁석식 적석분을 서로 두 다른 민족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있다(박순발 1996, 2001a). 이 구분은 역사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정당화 되었다. 반면에, 박중국(2011, 2012)은 구들시설의 사용여부를 민족 정체성을 찾는다. 유은식(2006)은, 좀 더 세련된 접근을 통해, 경질무문토기의 제작 및 조정기법에서 보이는 지역차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다른 고고학적 요소를 통해 박순발(1996, 2001a)이 제안한 '한-예' 구분을 본질적으로 수용 및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영동-영서 지방과 연해주를 연관시키는 연구자들의(예, 노혁진 2004; 유은식 2006, 2007, 2009; 강인욱 2007, 2008, 2009a, 2009b; 심재연 2007a; Subbotina 2007, 2009) 모델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즉, 토기 형식이나 생계경제의 유사성을 밝히면서 두 지역을 연결시키다. 이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로 이주나 '고고학적인 문화(권)'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한-예'를 구분하는 모델들을 비판하기 위해 묘지형식과 건축 평면형태의 분포를 검토하는 권오영(2009) 역시 사실은 비슷한 접근을 채용하고 있다.

대부분 모델에서 확인되는 네 가지의 핵심 방법론과 개념을 여기에서 제시 할 수는 있다. 그것은 바로, (1) '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 - 즉, 문화를 '고고학적 문화'로 인식; (2) '옳다 혹은

아니다'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이원적인(binary) 접근; (3) 역사문헌 자료에 의지하는 접근; (4) '민족'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이다. 이 범주들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며, 각 모델에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하고 (2)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주이지만, 문헌기록 자료의 활용(따라서 고고학적 패턴을 '민족'과 관계시키는 작업)은 중도유형문화 모델(박순발 1996, 2001a)과 가장 관련이 있다. 다른 모델들은 이것을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특히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후자의 두 범주(즉, (3)하고 (4))에 관한 논의는 중도유형문화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모델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모델로는 좁석식 적석분이 교역로의 통제와 사회-정치적 발달의 결과라는 송만영(2003)의 안이 있다. 이것은 정교한 모델이나, 이론적인 고려가 충분하지 않고 물질적 증거 역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과정적 설명(explanation of process)을 위해 역사문헌 자료에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이 있는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 문화의 개념

'고고학적 문화'라는 개념은 문화사적 접근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접근과 개념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고든 차일드(예, Childe 1929)의 작업을 떠올릴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접근은 현재 한국 고고학의 대표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문화사적 접근은,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이나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문화를 상호작용하는 단일한 조직체로만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은 바 많다(예, Binford 1962, 1965 ; Clarke 1978; Hodder, 1986; Jones, 1997; Johnson, 1999). 빈포드(Binford 1962)에 따르면, 고고학적 문화라는 개념의 바탕에는 문화에 대한 규범적 접근(normative view of culture)이 깔려 있다. 즉, 물질문화의 특정한 형식이나 세트는 어떠한 인구집단의 공통적인 '심적 원형'(mental template)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관점에 입각해서, 공통된 원형에서 비롯된 세트(즉,

물질문화 세트)들은 공통된 '문화'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특수한 세트들의 시공간적인 분포는 과거의 문화를 나타낸다는 입장이다(또한, Jones 1997).

이러한 입장에서, 변화나 과정에 대한 설명들은 이주와 전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것은 특수한 물질문화를 특수한 과거 집단이나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것의 논리적 결과이다. 어떠한 형식을 특수한 문화적 단위와 연결시킬 경우, 그 분포에서 보이는 통시적 변화는 문화적 단위의 본래의 '고향'에서의 이동이나, 이 문화적 단위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다른 지역의 집단이 그 형식을 채용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좁석식 적석분이나 구들시설, ㅊ-몸 건축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문화와 민족 간의 경계가 설정되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모델들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뚜렷이 보인다. 중부지역과 연해주를 연결시키는 모델의 경우에는 특정한 물질문화 형식의 기원이 확인되고, 두 지역은 -실재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이- 연결된다⁶.

문화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 전체에 걸쳐 사회적 행동이나 정체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특정한 물질문화의 지역적 맥락이나 그것의 실제 이용이나 의미는 고려되지 않고, 그것들이 특정한 '고고학적 문화' 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은 과거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물 형식과 그 분포에 대한 근시안적 편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다. 클라크(Clarke 1978)가 말했듯이,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트'들이 과거 인간 집단의 '세트'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세트들은 현재의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일 뿐이다. '형식' 그 자체에만 너무나 치중할 경우, 그 형식 요소들이 연구 지역 전체에 걸쳐 동일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간과될 수 있다. 사실 비슷한 형식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⁶ 강인욱(2007, 2009a)은 물질문화가 어떻게 연해주에서 중부로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세련된 과정적인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이주를 중심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고, 환경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환경 변화는 이후에 나온 연구를 통해 비판될 수 있다(예, Park 2011).

사용되었거나 매우 다른 맥락에서 출토된다면, 그것이 동일한 '고고학적 문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단위의 기원에 집중하는 문화사적 접근의 경우, 특정 고고학적 문화의 핵심적 물질문화 요소들이 다중의 기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설명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질무문토기문화의 기원에 관한 모델들이 그러하다. 그것의 기원이 중국 동북지방이나 한반도 서북지역이라는 주장도 있고(박순발 1993, 1996, 2004b), 연해주와 두만강유역이라는 주장도 있다(노혁진 2004; 유은식 2006, 2007; 강인욱 2007, 2009a). 그러나, 심재연(2011)에 의하면, 두 가설들은 단독으로는 중부지방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설명하지 못한다. 전자는 영동-영서지방에서 보이는 삼각형 점토대토기의 부재를 설명할 수 없고, 후자는 왜 연해주 집단이 이동했거나 왜 중부지방의 재지 집단들이 외부의 문화를 수용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⁷⁾. 사실은, 이 이슈와 관련된 다른 물질문화 요소들(즉, 타날문토기, 凸-뿔 건축, 구들시설 등)은 다중의 기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지역들로는 연해주(노혁진 2004; 유은식 2006, 2007; 강인욱 2007, 2009a; Aitkens et al 2009), 낙랑(박순발 2001c; 박중국 2011), 전국시대 중국 동북지방(최병현, 1998; 김장석 2009, 2012), 그리고 호남지역(김장석 2009, 2012, 2014) 등이 있다. 더욱이, 한반도 중부지방 내에서의 재지적 발전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심재연 2011). 문화사적인 접근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지역들 간의 관계를 풀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 모델들은 전체적인 과정이나 양상에 대한 조망 대신, 단일한 문화 요소의 단위에 집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이성과 복합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새로운 물질문화 형식들이 원삼국시대에 어떻게, 그리고 왜 중부지방에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른 이론적 틀과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유물의 형식에 집중하는 접근 대신에, '문화'를 인간행위와 반복적인 전통의 산물로 정의하는 접근은 비슷한 유물/기술 형식을 활용했던 지역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의

⁷⁾ 연해주에서 온 이주민 집단이 어떻게 타날문토기 채용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심재연 2008).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것에 대해서는 더 깊게 후술하고자 한다.

2. '체크리스트(checklist)' 접근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모델들은 한두 가지 물질문화 요소에 집중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특정 고고학적 '지표'를 채택하고, 그 지표의 존재여부에 따라 특정 '문화'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원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박순발(1996, 2001a)은 중도유형문화를 정의하기 위하여, 거의 전적으로 증석식 적석분의 존재여부에 의존한다. 필자는 박순발이 이 물질문화 요소에 주목한 것은 그것이 한강 하류지역의 물질문화와 명확한 대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뚜렷한 차이가 보이더라도, 다른 유물(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연질토기, 철기)이나 건축(凸-묘자형 건물)에서 보이는 두 지역간의 문화적 공통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박중국(2012) 역시 동일한 논리에 입각해서凸-묘자형 건축으로 '중도문화'를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구들시설 존재여부로 '한'과 '예'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앞서 논의된 '고고학적 문화' 개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크리스트' 접근은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의 핵심 논리는 비슷한 형식의 고고학적 단위를 서로 연결시키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통해 문화권을 정의하는 것이다. 실은, 특정한 '문화'를 특정한 물질문화의 형식이나 형식세트와 연결시키는 입장에서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광범위한 중도유형문화의 존재를 상정하는 모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기는 쉽다. 그러나, 중부지방의 고고학 자료가 복잡한 분포양상을 보이는 만큼, 특정 그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자료 중 한 두 가지 요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소를 왜 고고학적 문화의 지표로 특별히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론적 바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분석할 경우에는, 중부지방 내에서 집단의 명확한 경계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함이 밝혀진다(또한, 권오영 2009). 또한, 특정한 물질문화 요소에 대한 집중은 그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동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류학적 접근에서는 동일한 '종류(class)' 내에서의 변이성에 초점을 맞추지, 서로 다른 '종류'들 간의 관계는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Zedeño 2008, 2013; Martin 2013). IV-2 장에서 이 이슈에 대해 더 정확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특정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서로 맞추는 접근은, 이주나 전파의 논리와 합쳐질 경우,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凸자형와 뿔자형 건축이 그 예가 되겠다. 이 건축을 통해 연해주와 중부지방의 관련성을 이주(예, 노혁진 2004)나 이주 및 재지집단의 수용(강인욱 2007, 2009a)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 명확한 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예, 유은식 2006; 김재윤 2007) ⑧, 기본적인 평면형태 이외의 요소를 검토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공통성을 간단한 이주과정으로 설명하기가 쉽다. 그러나, 건축의 형태와 내적인 설계를 더 자세히 본다면, 이 두 지역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확인된다(예, 도면 1 참고).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인간행위나 상이한 개념 및 전통의 수용, 그리고 상이한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변수들은 양적(quantitatively), 질적(qualitatively), 그리고 해석적(interpretively)으로 분석될 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의 뒷부분에 더 깊게 고려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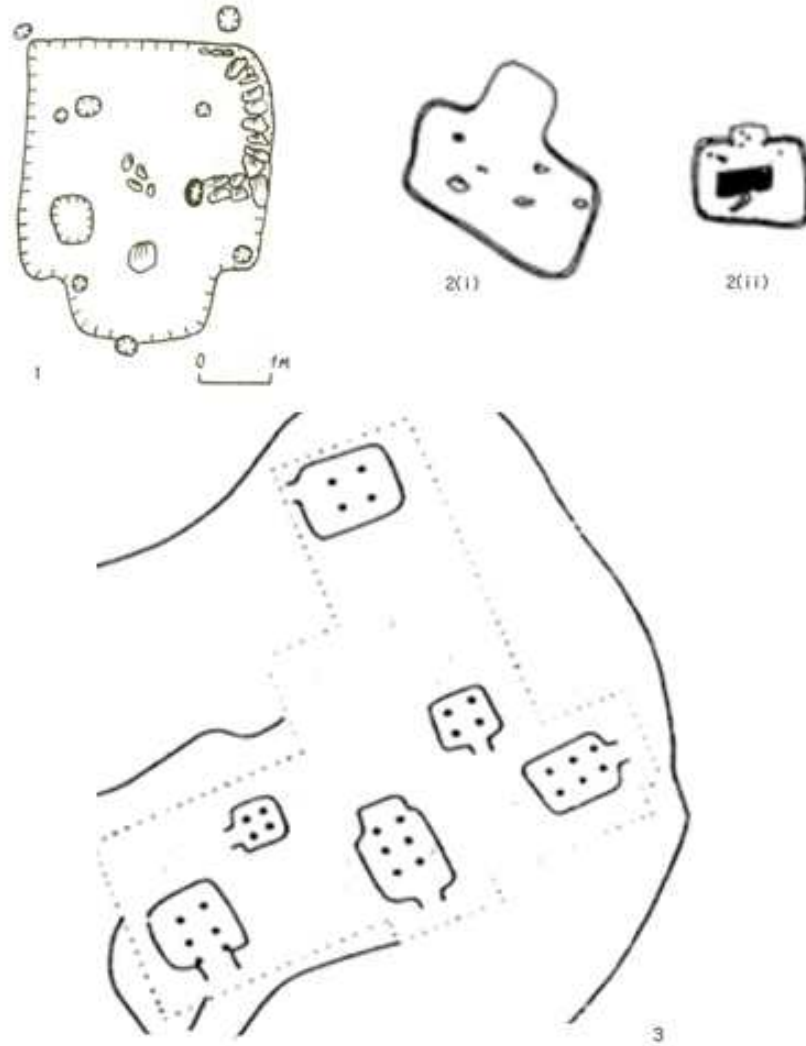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건축과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접근의 핵심적 가정들의 일부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먼저 박순발(1996, 2001a)의 중도유형문화 모델에서는 매장 유구 바탕으로 한강 중-하류 지역과 동북쪽 및 동쪽 지역과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적 요소들을 실제로 분석하면 이런 차이가 의심스럽다.

풍납토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2013) ⑨ 과 그 외의 12개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확인된 건축물(방형,凸-뿔자형)의 '기본단위'(base unit)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12개의 유적들은 한강⑩, 북한강⑪,

⑧ 또한, N.G. 아르제미예바(2011) 연해주 건축의 역사를 깊게 논의한다..

⑨ 이 분석을 위하여, '바닥'이나 바닥과 접해있는 층위에서 백제유물이 없는 유구를 원삼국시대의 것으로 이해했다.

⑩ 가평 대성리(京機文化財團·삼성에지니어링 2009; 거례문화유산연구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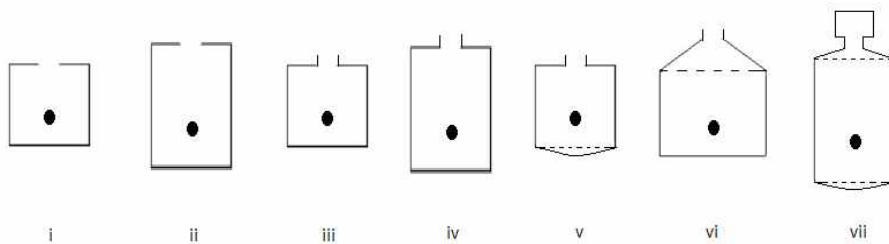


도면 1. 연해주의 건축은 중부지방 건축과 뚜렷이 상이하다 1. 구들시설의 배치와 아궁이 위치에 차이가 난다 - 연해주 끼예브까 유적의 주거유구 (N.G. 아르제미예바 2011: 434); 2. 출입시설이 건물의 장축에 있다 - (i) 연해주 알레니 유적의 2호, (ii) 연해주 알레니 유적의 4호 (유은식 2006: 151); 3. 건축이 4나 6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연해주 끼예브까 A유적의 1-6호 (유은식 2006: 151)

양평 양수리(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8)

① 춘천 신매대교(한림대학교 박물관 2003); 춘천 우두동(강원문화재연구소 2006a, 2012; 강릉문화재연구소 2007); 춘천 울문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a); 홍천 철정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남한강 ⑫, 그리고 영동지방 ⑬에 있다. 원삼국시대 상반기(기원전 100년~기원후 150년)에 해당하는 이 유적들은 맥락적으로 안전한 ⑭ 방사성탄소연대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했다. '기본단위'는 글래시(Glassie 1975)가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방이나 건물물의 '기본단위'를 그 방/건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단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건축물이나 방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 물론 실내 시설의 배치를 포함해서 - 관한 관념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또한, Glassie, 1990). 이러한 개념은 물론 실내의 시설도 포함한다. 기본단위는 형식적으로 분석될 수 있고 양적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원삼국시대 중부지방 건축의 경우에는, 기본단위가 방형이나 장방형이 된다(도면 2).



도면 2. 중부지방에 일반적으로 발견된 건축 형태와 그 기본단위의 예시; (i) 방형, (ii) 장방형, (iii) 방형-凸, (iv) 장방형-凸, (v) 곡선후면의凸, (vi) 5각형-凸, (vii) 6각형-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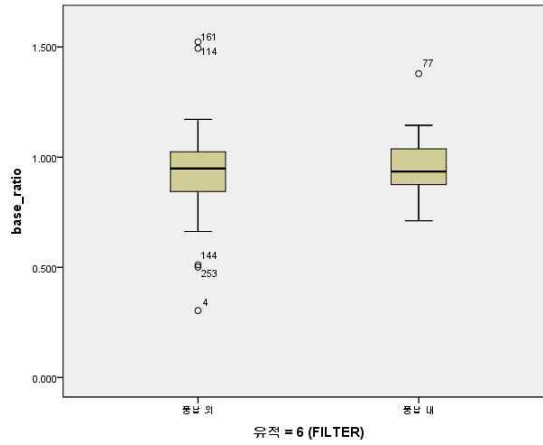
풍납토성과 '예' 집단의 영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비교하면, 기본단위의 비례(너비 : 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t-test;

⑫ 원주 동화리(한강문화재연구원 2008); 여주 연양리(국립중앙박물관 199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⑬ 강릉 초당동(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2008b;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a, 2007b;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0); 동해 송정동(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2010;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 2012, 2013); 강릉 금진리(예맥문화재연구원 2008b); 강릉 병산동(강원문화재연구소 2006b;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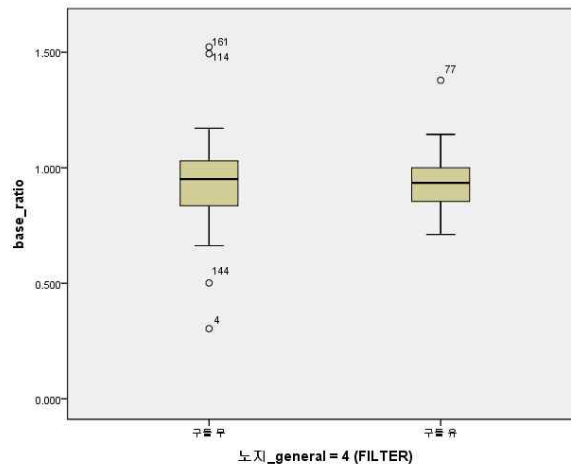
⑭ 안전한 시료는 건축적인 목탄으로 인식되어 있다. 즉, 건설연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가정이다.

$t = -0.520, p = 0.604$ ^⑮(도면 3). 즉, 중부지방 전체에 걸쳐 기본단위가 상이하지는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건축적 개념의 기본적 동일성을 밝히는 동시에, 좁석식 적석분 존재여부를 통해 제시한 구분의 유의미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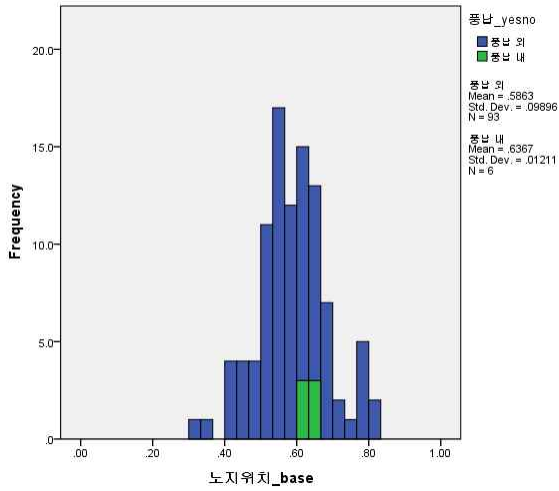
도면 3. 풍납토성과 다른 중부지방 유적의 건축 기본단위.

도면 4. 구들시설이 있는 건축과 구들시설이 없는 건축의 기본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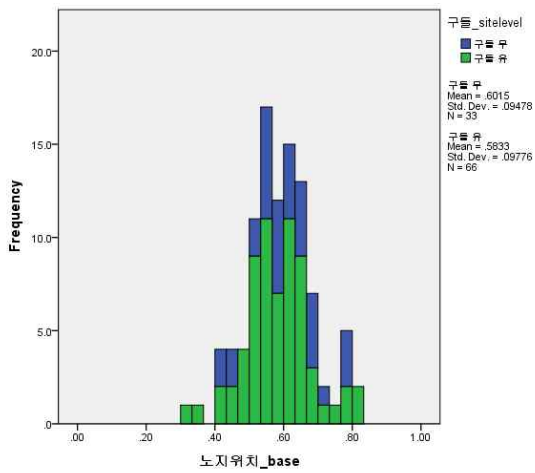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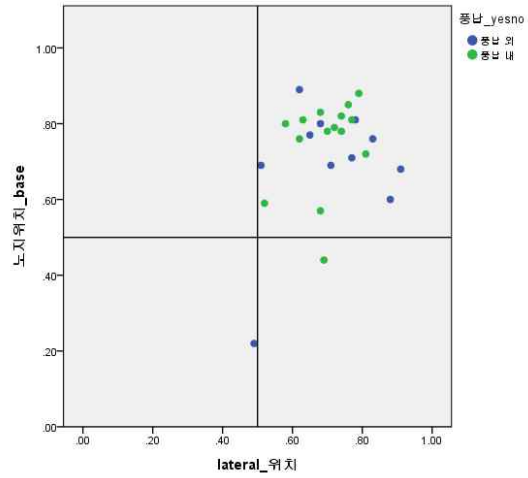
구들시설로 '한-예'의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박중국(2011, 2012)의 제안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들시설 있는 건물의 기본단위 비례와 구들시설 없는 건물의 비례를

^⑮ One Way Kolmogorov-Smirnov Test for normality: 풍납 외; $n = 111, Z = 1.042, p = 0.228$; 풍납; $n = 16, Z = 0.638, p = 0.810$.



도면 5. 풍납토성과 다른 중부지방 유적의 중앙노지시설 위치.

도면 6. 풍납토성과 다른 중부지방 유적의 구들시설 아궁이 위치.



도면 7. 구들시설이 있는 유적과 구들시설이 없는 유적의 중앙노지 위치.

비교하였다. 13개의 유적에 걸쳐 그 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t-test; $t = -0.264$, $p = 0.792$)¹⁶(도면 4).

분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또 다른 측면은 기본단위 내 중앙노지나 구들시설의 아궁이 위치이다. <도면 5>를 보면 풍납토성 건축물의 중앙노지 위치가 중부지방 전체에 분포하는 유적들의 건축물 중앙노지 위치와 연속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구들시설 아궁이 위치에도 적용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구들시설 아궁이는 거의 전적으로 건물 후면의 우측에 위치한다(도면 6). 마지막으로, 도면 7은 구들시설 있는 건물과 그것이 없는 건물의 노지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종류의 건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t-test; $t = 0.880$, $p = 0.381$)¹⁷.

이 결과들을 통하여 원삼국시대 동안 중부지방 전체에 공통된 건축 전통이 존재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중부지방 내에 명확한 지리적 경계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에 보충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차이의 부재는 유물 복합체에도 적용된다. 즉, 경질무문토기나 타날문토기와 같은 요소에도 해당된다. 그 둘은 중부지방의 모든 지역에 출토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이것이 민족적 동일성을 필연적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활방식과 관련된 개념들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동일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특정 종류의 고고학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이러한 동일성은 간과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체크리스트 접근의 중심 문제라고 밝힌다. 즉, 고고학적 문화 경계를 고고학 자료의 한 측면만으로 추론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거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¹⁶ One Way Kolmogorov-Smirnov Test for normality: 구들시설 없음; $n = 105$, $Z = 1.046$, $p = 0.224$; 구들시설 있음; $n = 18$, $Z = 0.757$, $p = 0.615$.

¹⁷ One Way Kolmogorov-Smirnov Test for normality: 구들시설 없는 유적; $n = 33$, $Z = 0.439$, $p = 0.990$; 구들시설 있는 유적; $n = 66$, $Z = 0.781$, $p = 0.575$.

3. 역사기록에 대한 이해

위에서 살펴본 바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 절과 다음 절에서는 박순발(1996, 2001a)의 중도유형문화 모델이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중부지방에 대한 이해들이 이 모델에서 시작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최근까지 다른 학자들이 재생산했던 ‘한’과 ‘예’ 집단의 영역적 차이에 관한 가정은 여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역사기록에 대한 이해는 다음 절에서 언급할 민족성(ethnicity)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둘을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주 B.D.(Ju 2009)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 고고학자들은 연구를 디자인하거나 모델을 만들 때 역사기록을 염두에 둔다. 더욱이, 고고학 자료 상의 변화나 패턴에 관한 설명도 흔히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제안된다(또한, Nelson 1995; 김장석 2012). 중도유형문화와 ‘한-예’ 주민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중도유형문화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박순발(1996, 2001a)은 『三國史記』와 『三國志』에¹⁸ 강하게 의존한다. 우선은, 백제라는 소국과 이후의 한성백제가 동일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 그리하여 마한 동맹체에 한 소국이라서 백제국이 ‘한’족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측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연구자들도 이 기본적인 가정을 수용해 왔다. 다만 주민집단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민족성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변할 수 있다(III-4 절 참조). 이럴 경우, 기원후 3세기 중-후기에 쓰여진¹⁹ 『三國志』에 등장하는 소국이 원삼국시대 전체의 현상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한 동맹체가 폐쇄적이고 민족적으로 순수했다는 가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후술할 것처럼, 『三國志』의 ‘마한’은 마한 동맹체에 대한 부분적이고

¹⁸ 다른 동이전 문헌도 참고한다.

¹⁹ 바잉턴(Byington 2009).

외부인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문헌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정치체는 (최소한 이상적으로는) 평등한 국가들로 구성된 동맹체였다(또한, Ju 2009).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와 권력관계를 다소 다른 관점에서 인식해야 하겠다. 예를 들면, 크럼리(Crumley 1995)는 헤텔아키(heterarchy)의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구조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위들(사람, 가족, 취락, 국가 등) 사이의 관계가 매우 융통성 있고 비위계적이기 때문에 변이성이 높다(또한, Rautman 1998). 이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마한 동맹체는 민족적인 조직이 아닌 정치적 조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실체로서의 '예'족 주민 역시 마한 동맹체의 일부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중도유형문화와 관련된 모델들은 '한'과 '예'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 『三國志』(그리고 그 외의 「동이전」 문헌)의 역사학적 맥락이나 진실성에 대해 깊고 비판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많은 내용은 동시기에 기록되었던 것이 아니라, 더 오래되고 심지어 유실된 고대중국의 기록을 참조한 것이었다(Byington 2009). 또한, 마한에 관한 문헌이 부분적으로는 믿을만한 민족지학적 보고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Byington 2009) 불구하고, 『三國志』의 저자 진수가 한반도에서 얼마나 넓게 여행했는지는 알기 힘들다. 따라서, 그 기록이 얼마까지가 사실이고, 신화와 소문이 얼마나 섞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²⁰. 헤로도토스의 스키타이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맥락에서는 역사가 곧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었다고 하며(예, Myres 1953; Hartog 1980), 헤로도토스가 실제로 스키타이 영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다(예, Armayor 1978). 주 B.D.(Ju 2009)는 고대 중국문헌에 대해서 비슷한 비판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다. 요약하자면, 「동이전」 문헌은 원삼국시대 한반도의 현황에 대하여 매우 부분적이며 전적으로 외부인(etic)의 입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당시 상황의 전부를 나타내거나 직접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²⁰ 파이(Pai 2000)에 의하면, 고대 중국인이 동이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전술 논의와도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이슈는 박순발(1996, 2001a)의 '예족'에 대한 이해이다. 박순발(1996, 2001a)은 전통적으로 김원용(1967)이 신뢰를 받았던 『三國史記』를 참조하면서, '예 민족'이 한강 하류지역의 북과 동북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예'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은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이다. 이 기록들은 기원후 3-4세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Best 2006)²¹. 또한 고대 중국 및 일본 문헌과 모순되는 점들도 많다(Best 2006; Ju 2009). 이것을 지지하는 사실로는 고대 중국기록에서 '예맥'이라는 단어가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예맥'이라는 단어는 기원후 3세기 중반까지는 '옥저'나 '동예'를 의미하지 않았다(권오중 2010). 또한, 「동이전」 문헌 전체를 볼 때, 마한에 관한 맥락에서 '예(맥)'이 언급된 경우는 없다. 대신에, '예맥'이 '진한의 북쪽'에 있다는 기록밖에 없다²². 이 상황은 원삼국시대의 전-중기에 250여년에 해당되는 역사기록의 공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체성과 민족성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런 역사기록이 기원후 3-4세기의 상황을 정확히 서술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원삼국시대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좁석식 적석분은 박순발(1996, 2001a)의 중도유형문화 모델에서 '한-예' 구분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이 묘제는 매우 특정한 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도유형문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된 다수의 좁석식 적석분은 기원후 3세기(송만영 2003; 심재연 2010)나 한성백제기(박중국 20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평가된 바 있다. 이는 박순발(1996, 2001a)의 기준을 따른다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전-중반까지 '한-예'의 구분을 나타내는 현존하는 고고학적 요소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기원후 3세기 무렵에 '예맥'의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언급한 상기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상황은 송만영(2003)과 심재연(2010)의 대안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좁석식 적석분과 같은 대규모 묘제는 민족성이나

²¹ 베스트(Best 2006)는 초기 백제에 관한 기록에는 여러 왕의 삶과 치세가 '부자연하게' 길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따라서, 건국이 기원전시기로 밀어진다.

²² 『後漢書』와 『三國志』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김재선 외 1998 번역).

정체성의 지표가 아니라, 기원후 2세기 후반~3세기 중반에 발생했던 특정한 정치 혹은 권력 구조의 지표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명확해지는 것은 중도유형문화 모델의 시발점이 고고학 자료 자체가 아니라, 역사기록이었다는 점이다. 문헌상에 등장하는 특정한 집단에 관한 기록을 통해 민족적 차이가 가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된 차이와 가장 유사한 지리적 분포를 보이는 고학적 요소가 다시 민족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채택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접근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역사기록은 이 모델이 가정하는 것보다 정확하지도 않고 신뢰도가 높지도 않다. 이 때문에,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절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문헌에 등장하는 집단과 고고학 자료에서 보이는 패턴을 관련 연결시킬 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4. 민족성에 대한 이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고고학의 문화사적 접근은 특정한 고고학적 문화와 '한민족'의 역사나 기원을 확인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고고학적 자료에서 확인된 패턴에 역사기록에 나오는 집단을 연결시키거나, 아예 역사기록에서 출발하여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고고학적 문화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에서 등장하는 집단들이 명백하게 민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한'이나 '예(계)'로 이해된다(예, 박순발 2001a).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고고학자가 과연 특정한 고고학적 요소나 그 요소들의 세트로부터 민족성이나 정치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다(예, Hodder 1982; Upton 1996; Jones 1997; 권오영 2010).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민족성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고고학적 단위들이 반드시 특정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오영(2010)은 집단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에는 3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즉, (i) 자신의 정체성, (ii) 타인 입장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iii) 실제 종족 정체성이 그것이다. 이 중 세 번째는 '계통적

민족성(genealogical ethnicity)'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권오영(2010)의 개념을 따르면,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기원후 3~4세기까지는 고대 중국문헌에 등장하는 '한', '예', 그리고 '맥'이라는 이름들 밖에는 없었다²³. 이 것은 타자의 에틱(etic)한 시각을 바탕으로 명확히 기록한 것인 만큼, 한반도 집단들의 실제 상황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²⁴. 즉, 권오영(2010)이 말한 (i)과 (iii)의 정체성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고학 자료에서 역사적 집단을 확인하는 일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록에 등장하는 이 집단 정체성들이 과거 사람들의 실제 정체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턴(1996: 1-2)은 많은 고고학자들이 민족성을 규범적(normative)이고 안정적이며, 그것을 나타내는 '실제'(authentic) 물질문화 지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민족성이 특정한 가치나 행동의 세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그것이 고정된 것이며,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민족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문화사적 패러다임에서 보인다. 넬슨(Nelson 1995)은 통합된 '한민족'에 대한 현재의 담론과, 오늘날 한국의 인구의 상대적으로 동종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입장을 강화시킨다고 제의한 바가 있다. 이러한 현대적 상황과 개념들은 과거에도 '민족'의 개념이 이렇게 강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이나 압박에 대해 반복적으로 저항하는 역사적으로 통합된 한민족에 관한 내러티브(narrative)도 이 입장을 지지한다(Pai, 2000; Hwang, 2010).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것일 가능성이 있기에, 고대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매우 의심스럽다(Hwang, 2010)²⁵.

²³ 『百濟本記』 초기기록에 나타나는 많은 범주들이 중국기록에서 채용되었음이 분명하다(Best 2006).

²⁴ 예를 들면, 김 B-J(Kim, B-J 2013)에 의하면, 새로이 설치된 낙랑군에 내의 역사적 집단들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정체성이나 역사는 고려되지 않은 채, 모두가 '후'(胡)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한'(漢)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응되는 개념이었다.

²⁵ 존스(Jones 1997: 10)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고고학이 현대 정치와 정체성의 문제에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업턴(Upton 1996)은 민족성과 물질문화 사이 관계의 융통성 혹은 가변성을 밝히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예를 든다. 1906년의 대지진 이후에, 원래는 주변과 분간될 수 없었던 건축적 경관을 가졌던 이 구역에 여러 가지 '중국식'²⁶ 요소들을 갖춘 건물들이 재건축되었다. 중국 이민자 1세대들은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축물들을 건설한 것은 미국인이나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중국계 미국인들이었다. 따라서, 미국인과 중국계 미국인들이 하나의 상상된 전통을 같이 창조했던 것이다. 이 '전통'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피드백 되었고, 특정한 정체성('중국계 미국인')을 구성했다. 이 예를 통해, 업턴(Upton 1996)은 민족성이 역동적(dynamic)이며, 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 정체성을 만드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Jones 1997).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 권오영(2010)이 제시한 정체성의 (i)과 (ii)의 측면은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자신 정체성과 타인 입장에서 본 민족의 개념은 유동성이 있고 고정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성은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외부 집단들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구성된다(Jones 1997). 앞에 논의하던 '예맥' 개념의 변이성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이는 또한 기원후 3세기의 고대 중국문헌이나 12세기의 『三國史記』에 기록된 집단들의 이름을 원삼국시대 전-중반기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헌에 기록된 민족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로저스(Rogers 1995)는 기원후 16세기 야드킨(Yadkin) 분지(미국 북 캐롤라이나 주)의 고고학 자료에 보이는 다양한 요소들(토기, 석기, 유구형태)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동시기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여러 집단들이 이 유역에 공존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로저스(Rogers 1995)는 처음에는 특정한 세트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 이 집단의 영역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어떤 고고학적 요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고고학 자료의 지리적 분포와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집단을 정의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의 세트가 없었던 것이다. 이 상황은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경우와 분명히 유사하다. 또한, 앞의 논의한 것처럼, 고고학적인 패턴과

²⁶ 예를 들면, 표지판, 등롱, 지붕의 전통적인 두공, 탑 등.

과거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특정한 물질문화와 특정한 정체성을 간단히 연결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 적절할 수 있지만, 모든 사례에 적절하다고 가정하지는 못한다(Hodder, 1982). 즉, 어떠한 고고학적 요소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민족'을 제의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다. 호더와 헛슨(Hodder and Hutson 2003)은 이러한 것을 '스포일러(spoiler) 이론'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물질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질문화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추정에 도전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해야 함과,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킨다.

IV. 고찰과 대안

1.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모델들에 대해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이슈들이 부각된다. 기존의 모델들이 과거현상을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는지와, 중도유형문화 모델이 이후의 작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그것이다. 즉, 중도유형문화 모델의 그릇된 추정과 결론이 어느 정도까지 재생산되었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논의했던 문제들로 인해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던 기존의 모델들이 과거현상을 제대로 반영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 모델들은 거의 다 고고학 자료의 한 두 형식적인 요소에만 의존하며, 이 요소를 과거 집단과 안전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추정을 한다. 그리고는 그 과거 집단을 역사기록에 언급된 집단과 연결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은 이론적인 바탕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모델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문헌기록도 부분적이거나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록 문헌에 나타나는 집단의 이름을 인정하더라도, 이 것은 전적으로 외인의 에틱(etic)한 입장일 뿐이다. 따라서, 원삼국시대 한반도에 존재했을 내적 에믹(emic)한 범주와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판은 중도유형문화를 모델에 포함하여,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을 다룬 대부분 모델들에 적용될 수가 있다. 중도유형문화 모델의 중요성과 그것의 큰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고고학적 문화라는 개념으로 특정한 민족의 영역을 설정한 것과, 외국의 역사기록이나 이차, 삼차 문헌에 등장하는 집단과 범주를 활용한 것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방법론이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담론의 틀을 구성했다. 즉, 중부지방의 명확한 '한-예' 영역구별에 대한 추정은 구체화되었고, 원삼국시대 전체에 적용되었다. 한민족과 그의 기원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고고학적 접근에는 이러한 결론이 당연하다. 사실은, 이 접근은 이러한 구별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이후의

작업들은 거의 동일한 목적이나 방법론을 가졌다. 따라서, 민족적 차이를 확인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적 지표를 사용했어도, 원래의 기본적인 추정이 재생산되었다.

언급한 것처럼, 원래의 중부유형문화 개념(박순발 1996, 2001a)은 주요한 추정의 틀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과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이 시기에 대한 생각의 흐름도 구성했다. 예를 들면, 토기제작기법의 차이가, 대안 과정이나 해석의 논의 없이 민족 차이로 해석되었다(유은식 2006). 하지만,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중도유형문화를 구성했던 민족성에 대한 가정과 활용된 방법론은 결함이 있고 이론적인 바탕도 취약하다. 그래서, 이 모델의 과거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했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중부에 '한-예' 구별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지표는 원삼국시대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모델이 연구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러한 오해가 재생산되고 확대되었다.

체크리스트 접근, 물질문화적 지표로 민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문헌기록의 무비판적이거나 다소 축어적인 해석과 같은 방법론적 접근이나 이론적 추정 때문에 기존 모델들은 과거의 캐리커처(caricature)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물질문화 단위의 세부사항들에만 집중하는 만큼, 제시된 모델들은 과거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그들의 전통이나 정체성을 참고하지 않는다. 사실, 고고학 자료의 과거 제작자나 그것을 활용했던 과거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고고학 자료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접근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캐리커처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모델들이 과거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방법론과 (정치적인) 관심사, 유행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고학 자료만을 통해 설정된 '그룹'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그룹'을 설정하는 작업은 유물의 시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때는 유용할 수가 있다(Trigger 2006: 310). 그래서, 지역 단위로 물질문화 복합체나 편년을 구성하는 작업에 필수적인 접근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고고학자들은, 아이켄스 외(Aikens et al 2009)의 '동해 오이쿠메네(oikumene)' 개념이나 강인욱(2008)의

‘무문토기문화권’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분포패턴을 밝힐 수 있다²⁷. 이 ‘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났던 지역이나 교역 네트워크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권’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일어났던 사회-문화적 과정들에 대해 알기 매우 어렵다.

전통적인 방법론이 이렇듯 유익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물질문화 요소가 공통된 민족성, 정체성, 사용방식, 아니면 사회적 의미를 표시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인식론적인 한계를 유념해야 하며, 특정한 고고학적 지표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명확하고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집단을 무비판적으로 선택하고 고고학 자료의 내적 패턴과 연결시키는 것은 순환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즉, 가설을 (예를 들면, 한성백제 동과 동북쪽에 ‘예’라는 문화가 존재하였다) 처음부터 사실로 인식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는 무시되며, 가설의 패턴에 적합한 요소만이 선택된다. 이러한 모델로부터 나온 결과는 따라서 반증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불만족스럽다. 더 맥락적인 분석 없이는 과거의 문화적 과정의 뉘앙스를 고려할 수 없고, 연구의 대상은 유물의 제작자나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으로 옮겨갈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필자는 대안적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맥락적이고 관계적인 방법론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기존 모델들은 이 지역의 고고학적 복합체에 내재한 변이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그 복합체의 한두 가지 요소만을 바탕으로 캐리커처를 만든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제작자와 사용자들을 무시하면서, 유물만을 열광적으로 우러러 보는 태도이다. 유물 뒤에 있는 과거 사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즉, 제작기법과 전통, 사용패턴,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통한 정의이다(또한, Pfaffenberger 1992). 물질문화의 동일한 형식이나 종류가 다른 집단에 의해 상이하게 채용될

²⁷ 모든 경우에는 이렇지 않다 (Hodder 1982 참조).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한다. 필자는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과 더 가깝다고 제안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집단/민족과 그의 지리적인 영역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대신에 물질문화 복합체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상이점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발생했고 이 패턴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유물은 제작자와 그의 전통이나 기술에 대한 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제작하는 물질문화는 (그리고 제작하지 않는 물질문화는) 선재(先在)하는 물질적 세계를 구성한다.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순간 순간의 행동을 알게 된다(Gosden 2005; Miller 2005). 또한, 물질의 제작기법과 그와 관련된 신체운동은 반복적인 행동과 학습을 통해 배워지고 재생산된다(Bourdieu 1977; Pader 1988; Dobres 2000; Mauss 2006[1935]).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특정한 유물 형태들과 행동의 연쇄들(action chains)이다. 이는 스타크 외(Stark et al 2005)의 '기술적 스타일(technological style)' 개념과 아주 가깝다. 기술적 스타일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또한, Childs 1991 참조)²⁸. 이는 워스트(Wobst 1977)나 와이스너(Weissner 1983)가 사회적 정보교환과 상징적(emblemic) 스타일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연구와 다소 다르다. 사실은, 제작기법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는 사켓(Sackett 1982)의 이소크레스틱(isochrestic) 스타일과 비슷하다. 그런데, 기술적인 스타일에 민족성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²⁹(아래 참조).

스타크 외 (Stark et al 1995)는 이러한 제작과정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제의한다. 특히 실용적인 물건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 개념을 통하여 13세기 애리조나 주의 이주에 대해서 조사한다. 제작이나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학습과, 이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생산의 과정 속에서 제작자나 사용자는 습관이 든다(habituate).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들은 일상상황에

²⁸ 도브르스(Dobres 2000)와 이성주(2013)는 *chaîne opératoire*에 관한 이야기에 비슷한 이슈를 논의한다(또한, Lemmonier 1992).

²⁹ 헤그몬(Hegmon 1992)과 김종일(2008: 102-104)은 스타일에 대한 담론을 재검토한 바가 있다.

택해지는 과정과 행동패턴들이 된다(또한, Bourdieu 1977 ; Mauss 2006[1935]).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는 유물화가 된 사람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든 사례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요소나 자원이 결핍된 사태에서는 다른 기법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자들은 일부 특정한 물건들의 경우, 결국의 쓸모에 따라 의도적으로 다른 기법을 통해 제작할 수 있다³⁰. 또한 하나의 제품을 여러 제작자들의 손을 거쳐갈(multiple authorship)수 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물질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는 전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규칙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기술적인 스타일 개념과 관련해서 제작기법이나 활용방식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토기의 경우에는, 태토의 구성, 첨가물의 종류와 양, 토기 성형과 조정의 방식, 그리고 문양(즉, 문양 자체나 문양을 시문하는 방식)을 모두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경기와 영동-영서 사이에는 경질무문토기의 제작기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고(유은식 2006), 삼국시대 들어가면 가평 대성리 유적의 타날문토기에서 표준화와 전문화가 나타남이 확인되었다(이성주 2013). 이와 같은 조사는, 유물형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사에 비해, 유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형식'이 다른 기법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술적 스타일 개념을 통하여 민족이나 집단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또한, Stark et al 199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술적인 스타일 세트가 장기적으로 재생산된다면, 그것은 재생산을 하는 특정한 그룹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형태는 비슷하지만 상이한 기법으로

³⁰ 고고학자가 정의하는 토기형식은 과거사람들의 정의와 매우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고고학적 입장에서 본 '동일한 형식'을 과거사람들이 상이하게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허드선과 마켄스(Hutson and Markens 2002)는 민족분류에 대한 이슈를 재검토하면서, 사람의 신분, 젠더 등에 따라 물질문화를 다르게 정의하고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또한 Stark 2003 참조).

만든 유물은 이주, 혼인관계, 교환, 아니면 모방(emulation)(Miller 1985 참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형식론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애매한 '이주'나 '전파'에 관한 추론에 비하여, 사회-문화적 과정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물건의 궁극적인 사용방식이나 의미의 경우에는, 맥락적 접근이 앞에 논의한 기술적 스타일 개념과 유사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호더(Hodder 1986)는 인간들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 행동하고, 그 맥락의 아주 주요한 한 부분이 물질문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또한, Shanks and Tilley 1987; Hodder and Hutson 2003).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물질문화의 활용 및 이해를 규제하고, 고고학자는 유물의 규칙적인 퇴적 맥락을 통하여 이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유물의 출토맥락에 대한 검토는, 유구 사이의 관계, 다른 물질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생계경제적 요소에 대한 조사와 같이 진행된다면, 매우 유익하다.

앞에 '기본단위'(basic unit)에 대해 간단히 논의한 바와 같이, 건축의 평면형태나 내적 활동영역을 비슷한 접근방법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 물건과 마찬가지로, 건축은 일상행동의 틀이 되는 물질문화의 한 부분이다(Johnson 1993). 따라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Gregory and Urry 1985; Pader 1988). 때문에, 건축의 평면형태나 내적인 공간배치가 건축 내의 생활방식에 종속되어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적절하다(Johnson 1993)(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다면, 건축형태와 공간배치를 지배하는 '규칙'들은 건축 내의 생활방식이나 전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행위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의식하지는 못할지라도, 각 건축 종류에 관해 적절한 '규칙'과 전통을 알고, 이 개념대로 건물을 짓거나 행동을 한다(Rapoport 1969; Glassie 1975).

스타크 외(Stark et al 1995)는 유물의 기술적 스타일에 관한 고려에서뿐만 아니라, 유구의 시공간적 형태나 패턴의 연구에도 비슷한 접근을 택한다. 버마이스터(Burmeister 2000)는 보르드위(Bourdieu 1977)의 프랙티스(practice)와 하비투스(*habitus*) 개념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확대한다. 그는, 건축 내적 공간의 전통과 행위가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자가 분석할 수 있는 반복적 패턴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론은 앞에 언급한 글래시(Glassie 1975)의 기본단위 모델이다. 이 개념은 처음부터 명확한 분석적인 단위를 제공하며, 이에 첨부될 수 있는 단위(노지위치, 출입구 위치나 방향, 출입구시설 등)도 양적이거나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방 하나로 구성된 '기본 건축물(elementary structure)'의 분석에 아주 유익하다. 더불어,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된 복합 건축에도 적용할 수 있다(Glassie 1975 사례조사 공급).

여기까지의 논의된 개념들과 분석들은 방법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그것들은 다변수적 접근이고 관계적 접근이다. 물질문화적 복합체의 몇 가지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어서 다변수적인 접근이다. 또한, 분석의 대상은 특정한 고고학적 요소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요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접근이다³¹. 왓스(Watts 2013)와 인골드(Ingold 2013)는 물건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물질이나 인간과 더불어 관계적 네트워크 속에 공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물건의 물건들 간의 상대적 위치나 특정한 종류의 물건들 사이의 상태적 위치, 그리고 그 위치의 반복적 패턴에 대한 검토는 그 물건의 형식에 대한 내적인 검토만큼 유익하고 필수적이다(예, Zedeño 2008; 2013).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문화 내에 존재하는 사용법의 변이성, 의미, 그리고 전통을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자는, 이 접근의 방법론과 유익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간단한 사례연구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번째는 마연기법으로 조정된 중부지방 경질무문토기의 맥락에 대한 고려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의 건축물로, 특히 구들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방식에 대해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

(1) 마연조정 경질무문토기에 대한 맥락적 검토

유은식(2006, 2009)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발견된 강원도의 마연토기가 이 지역과 연해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³¹ 물론, 관계적인 분석은 필연적으로 다변수적이다.

있다³². 이 연구는 '마연토기'로 규정된 토기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중부지방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마연' 조정기법이 확인된다. '마연조정', '마연흔', 그리고 '부분적 마연'이 그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유은식(2006, 2009)의 연구는 다수의 마연토기가 출토된 가평 대성리 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서가 출판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원삼국시대 중부지방 '마연토기'의 분포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대신에, 여기에서는 마연조정토기의 건축적 출토맥락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형식은 서로 다를지라도, 마연조정된 토기들은 특정한 '기술적 스타일'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시나 정보교환의 기능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연조정된 토기는 '상징적 스타일'의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조정기법의 원인은 제작자마다의 개인적 특이성의 결과 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연조정이 반복적으로 택해진 것은 의미성의 표시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마연조정의 맥락적 분포를 검토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표 1. 13 중부지방 유적 전체에, 각 건축적 맥락에 따른 마연조정 경질무문토기의 평균 량.

	방형	장방형	凸자형	몸자형	철/여 ³³
건축물 수	28	18	105	26	18
마연조정 토기 수	19	8	156	86	46
건물 1기당					
마연조정 토기 수	0.679	0.444	1.486	3.308	2.556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출발점은, 각 건축형태에서 발견된 마연조정 경질무문토기의 비례를, 그 토기 형식을 불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다. <표 1>은 앞서 살펴보았던 13개의 유적을 중심으로 진행한 분석의

³² Zhushchikhovskaya(2013)는 연해주와 상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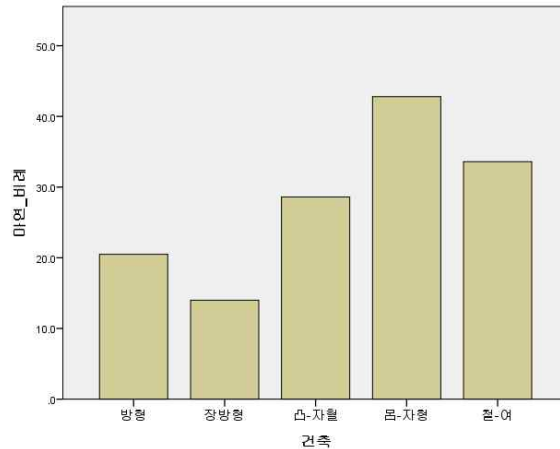
³³ 이 범주는 출입시설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凸자형인지, 몸자형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마연조정토기는 출입구시설이 있는 건축에, 특히
 목자형 건축에 집중된 것이 뚜렷이 보인다.

표 2. 각 건축적 맥락에, 마연조정이 있는 경질무문토기의 비율.

건축 형태	방형	장방형	凸자형	목자형	철/여
% 마연조정	20.5	14	28.6	42.8	33.6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문제는 마연조정토기의
 평균 수량이 특정한 건축평면형태가 아니라, 경질무문토기의 총 개수와
 관련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방형건축과凸자형 건축의
 마연조정 경질무문토기의 절대 수량은 다를지라도, 그 비율은 사실
 비슷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표 1>에 나타나는 차이는 오해일 수도
 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경질무문토기 중 마연조정토기의 비율을
 계산했다(표 2). <도면 8>을 참고하면, 앞에서 확인한 대비가 다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연조정토기와 목자형 건축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도면 8. 각 건축형태에 경질 무문토기 중의 마연조정된 토기 상대 비례.

이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담고 있다. 제일 명확한 것은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서 마연조정토기와 목자형 건축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凸자형 건축도) 어떠한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위세품인 한(漢)이나 낙랑(계)토기의 분포가 좋은 시작점을

제공한다(표 3 참조). 이 경우에도 이러한 유물들과 출입구시설 있는 건축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더욱이,凸자형(0.235)과 呂자형(0.538) 사이에는, 마연조정토기의 경우와 비슷하게, 한(漢)식-낙랑(계)토기의 분포 차이가 나타난다. 카이 제곱 분석(χ^2 Analysis)은 마연토기와 한(漢)식-낙랑(계)토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힌다($\chi^2 = 6.009$, d.f. = 1, p = 0.014: 표 4). 그러나, 차이가 유의해도, 강하지는 않다(Phi = 0.203, p = 0.014). 이러한 패턴과 관계는 이 토기종류와 출입구시설 있는 건축이 신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급한 해석이다.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하다. 따라서, 더 넓은 검토가 필수적이다. 사실, 이 패턴을 주민의 계통과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하튼, 이 간단한 분석은 새로운 가설을 제공해준다.

표 3. 출입구시설이 있는 건축과 출입시설이 없는 건축에 한(漢)식이나 낙랑(계)토기의 상대적인 비례

건축형태	낙랑(계) 수	건축 수	비례
출구시설 無	5	46	0.109
출구시설 有	43	149	0.289

표 4. 한(漢)식이나 낙랑(계)토기와 마연조정토기의 공반 비교

낙랑계_여부 * 마연_존재여부 Crosstab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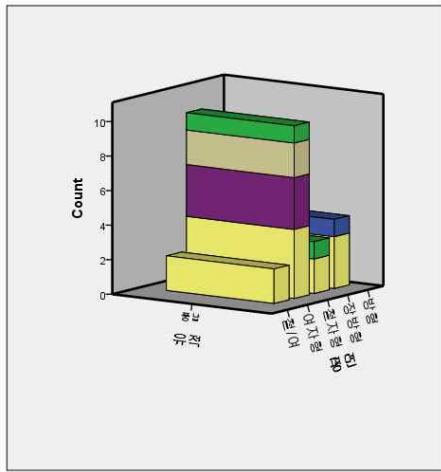
			마연_존재여부		Total
			마연무	마연유	
낙랑계_여부	무	Count	86	40	126
		Expected Count	81.1	44.9	126.0
	유	Count	8	12	20
		Expected Count	12.9	7.1	20.0
Total	Count	94	52	146	
	Expected Count	94.0	52.0	146.0	

이 결과의 또 다른 시사점은凸자형과 뿔자형 건축의 차이에 대한 기존 견해와 관련된 것이다. 즉, 이 두 평면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중국(2011, 2012)은凸자형과 뿔자형 건축을 구별하는 것의 타당성을 의심한 바가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보존상태 때문에 뿔자형 건축의 기둥구멍이나 토양처리에 관한 증거들이 제거되어 고고학적 분류로는凸자형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그래서 출입구시설이 확인되는 모든 건축을 뿔자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만영(1999)은 대실(大室)에 비해 출입구시설이 덜 깊게 설치되어 있고, 복도가 대실로 경사져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또한, 송만영 2010b). 그는凸-뿔의 구별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보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부편년을 구성하기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송만영 1999). 그런데 앞서 살펴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입장들에 강하게 도전한다. 즉, 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출입구시설의 형태에서 보이는 차이가 실제로 유의한 차이임을 추론할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차이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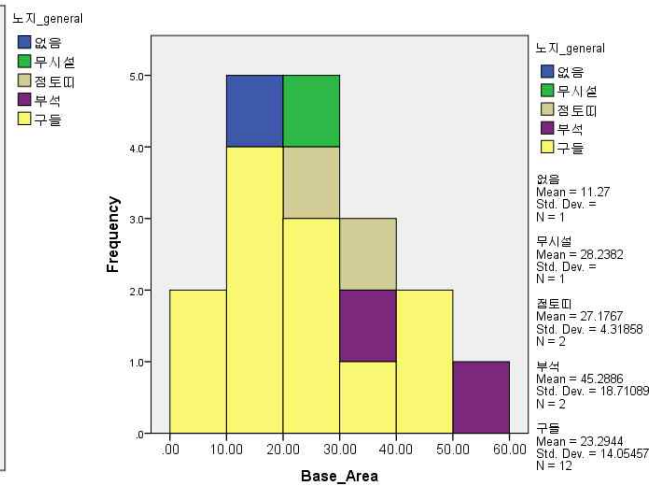
(2) 사례 연구 2: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의 구들 사용방식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건축 내 구들시설 아궁이의 위치는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도면 6). 이것과 건축의 다른 측면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들의 경우(즉, 불에 관한 행동), 그것이 건물 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공통된 관념이 존재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구들시설의 건축적인 맥락이다. 구들시설이 어떠한 건축에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유적 단위로 진행한다면 이 시설의 사용 패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보이는 구들시설의 건축적 맥락을 비교 조사한 결과, 그것의 복잡한 사용패턴이 일부 드러났다. 즉, 기본단위와 공간배치에서는 공통된 개념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구들시설을 중심으로 보면 생활방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고려된 맥락적 변수는 건축 평면형태와 기본단위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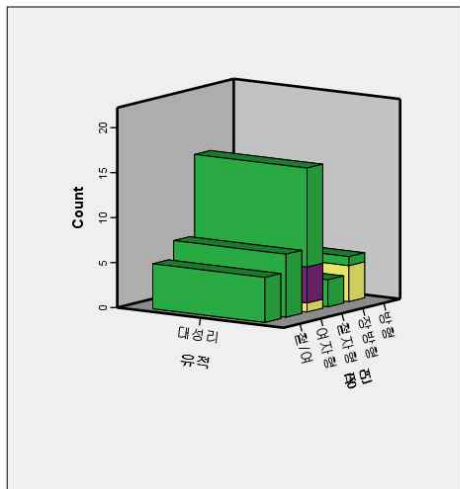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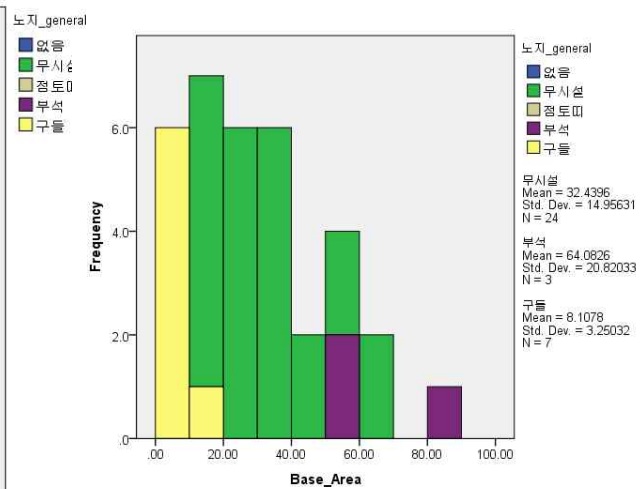


(ii)

도면 9. (i) 풍납토성에, 각 건축형태으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ii) 풍납토성에, 건물 크기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i)



(ii)

도면 10. (i) 가평 대성리 유적에, 각 건축형태으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ii) 가평 대성리 유적에, 건물 크기로, 노지나 구들시설의 분포.

(m²)이다. 또한, 맥락적인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중앙노지를 포함하였지만 구들시설이 분석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변수는 건축적 전통과 내적인 공간배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생활방식과 건축에 관한 행동을 밝혀준다. 그리고 이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각각의 변수를 따로 분석하는 것 보다는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풍납토성에서는 구들시설이 모든 건축평면에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도면 9-i), 다양한 규모의 건축에도 나타난다(도면 9-ii). 반면, 가평 대성리 유적에는, 구들시설이 더 드물며, 하나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면, 방형 건축에만 나타난다(도면 10-i). 더불어, 구들시설이 소규모 건축에 한정되어 있다. 구들시설이 있는 6개의 건물 중 5개가 10m² 이하의 규모이다(도면 10-ii). 두 유적 간의 공통점 중 하나는 소규모 건물에 중앙노지시설이 없는 경향이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출입구시설 있는 건축에 중앙노지가 집중되는 경향이다.

결론적으로는,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시론적인 가설과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적 사이에는 구들시설의 역할 및 그와 관련된 행위가 상이하다고 제안할 수가 있다. 가평 대성리 유적의 경우에는 방형 건축이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풍납토성에서는 그 사회적 역할이 달랐거나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들시설의 '기능'이 난방, 특정한 요리, 수공업 생산 행위, 아니면 그것의 어떠한 종합을 위한 것인지 확실히 추론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용 패턴과 의미가 두 유적 사이에 상이하다고 할 수는 있다. 이러한 차이는 건물 간에 사람들이 이동했던 패턴과, 취락의 구성이나 건물 간의 관계는 물론, 구들시설의 사회-문화적 의미나 역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만큼, 이 이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에 대한 다른 이해

지금까지 살펴 본 두 사례연구는 맥락적, 다변수적, 그리고 관계 접근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조정기법과 같은 기술적 스타일의 측면이나, 유물의 출토맥락이며, 공반되는 다른 종류의 물질문화 등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접근에 비하여, 과거 문화와 인간행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두 유적 간에 건축 내의 시설에 대한 간단한 연구는 뚜렷한 생활방식과 사회조직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밝혀준다. 필자는 제작전통, 생활방식, 그리고 특정한 기술이나 물질문화 출토맥락의 규칙성이, 유물의 특정한 형식에 비해서, 과거 그룹이나 사회를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연구들은 새로운 가설과 가능한 연구 방향을 밝혀주기도 한다. 출입구시설이 없는 건축과 시설이 있는 건축 사이의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하나의 예이다. 이에는凸자형과 몸자형 건축의 구별이 포함된다. 마연조정 경질무문토기의 기술적인 스타일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연조정토기와 마연되지 않은 경질무문토기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유의할 수가 있다. 또한, 마연조정토기가 있는 유적이나 유구와 없는 것들 간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취락구조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구들시설이 있는 소규모 방형 건축의 특이한 사용맥락이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맥락적 '기술적인 스타일'이나 건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감으로써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의 사회-문화적 조직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과 시기에 대한 모델들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델들이 과거 인간행위와 더 깊게 관련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가지 단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즉, 지역 전체에 대한 분석(사례연구 1), 유적 간 검토(사례연구 2), 그리고 유적 내의 조사에³⁴ 적용될 수 있다. 이 접근에서는 모든 차이점과 유사점이

³⁴ 데마레이(DeMarrais 2013)는 스페인 정복 이전의 서북쪽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의미하게 여겨지게 된다. 왜냐하면 모두 인간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진 패턴과 규칙들을 통하여 고고학자들은 그것의 이유, 결과, 그리고 그에 관한 적절한 해석의 가능성들의 좁혀 나갈 수 있다³⁵. 따라서, 과거 사람들의 삶과 '집단'에 대해 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이것으로는 문화적인 과정, 변화, 그리고 사회적 '발달'에 대한 더 세련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물질문화의 다양한 양상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기록에 대한 의존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 고고학 자료 그 자체에 대한 집중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물질문화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기 위한 도구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문헌을 '검증'하고 과거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인간행위를 그 중심에 두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문헌기록보다 과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기록은 힌트나 가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앞서 논의한 바 같이, 고고학 자료와 그 분포를 역사문헌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고고학적 요소의 장기적인 규칙과 차이는 상이가 '그룹'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체성이나 민족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접근이다. 생활방식에서의 공통된 규칙성이 동일한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상징하거나 표현하는 물질문화는 상황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Upton 1996; Jones 1997). 따라서, 고고학적 패턴과 특정한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그룹' 사이의 관계, 기술의 전파, 그리고 확인 가능한 정치체의 확산(예, 한성백제)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한 결론은 세련된 이론적이고 실증적 정당화가 필요하겠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은 특정한 집단의 기원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그룹이나 집단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유적에 여러 종류의 유물을 검토했고, 제작전통에서 주목할 만한 자율성과 복수의 생산자에 의한 제작이 뚜렷하다고 추론한 바 있다.

³⁵ 또한, 바렛(Barrett 1994)의 '가능성의 고고학(Archaeology of Possibilities)' 참조.

검토를 중요시한다. 즉, 어떠한 집단이 어디에서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의 역사적으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주목하는 접근이다.

V. 결론

이 논문에서 이루어진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관한 기존의 모델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 모델들이 과거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었다. 특정한 물질문화가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정은 매우 약한 근거를 가진다. 또한, 역사문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기원후 3세기의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기원전 1세기로 투영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중도유형문화' 모델로 인해 이후의 담론에서 '한-예'의 구별에 과중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물질문화 요소가 이 구별을 나타내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구별의 타당성에 도전한 학자는 많지 않다.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지금의 우세한 패러다임이 이러한 구별을 부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모델들은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한 캐리커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즉, 순전히 고고학적인 패턴들이 민족이나 정치와 관련된 형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문화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유물의 형식 자체보다는 인간행위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물질문화의 제작전통과 건축이나 취락의 공간배치에서 보이는 규칙성 바탕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즉, '문화'는 반복적인 전통과 행위 패턴으로 정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고고학 자료의 맥락적, 다변수적, 그리고 관계적 접근을 통해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집단들을 정확히 확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문화 전통의 모든 차이점과 유사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것들은 각각의 유의미한 역사적 궤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을 활용하는 두 개의 사례연구는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을 이해하기 위한 유익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부지방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특정한 조정기법과 건축형태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凸자형과 뿔자형 건축의 차이와 경질무문토기에서 마연조정기법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또한,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 사이에서 보이는 구들시설의 사용법과 건축적 맥락의 주요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포착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논의된 접근을 통해서는 과거 사람들의 행위패턴을 직접적으로 참조함으로써 문화적 과정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이 접근에서는 이론적 바탕이 취약한 민족성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파편적이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헌기록 대신 고고학 자료 그 자체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특정한 집단이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문제 대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더 섬세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원삼국시대 중부지방에 대해 더 세련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07,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확산과 전파」,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8,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a,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확산과 전파」, 『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 (환동해고고학연구회 편), 주류성출판사
- _____, 2009b, 「환동해 선사 문화관의 설정과 분기」, 『동북아문화연구』, 19호
- 고일홍, 2012, 「고고학 해석의 지평 넓히기 - “고고학 자료”에 대한 다양한 인식 검토」, 『人文論叢』, 68호
-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호
- _____, 2010, 「마한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호
- _____, 2011, 「한성백제의 시간적 상한과 하한」, 『백제연구』, 53호
- 권오중, 2010, 「鮎과 線의 고대사 - 중국 동북 '예맥'의 경우」, 『인문연구』, 60호
- 김성남, 2004, 「백제한성양식토기의 형성과 변천에 대하여」, 『고고학』, 3-1호
- 김원용, 1967, 「삼국시대의 개시에 관한 일고찰」, 『동아문화』, 7호
- _____, 1986, 『한국고고학개설 (제 3판)』, 일지사
- 김일규, 2009, 「고찰-2 - 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시대 전기 취락」, 『가평 대성리유적』,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김장석, 2009, 「호서와 서부호남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편년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33

- 김장석, 2012 「남한지역 장란형토기의 등장과 확산」, 『고고학』, 11-3호
- 김장석, 2014 「취사용기를 통해 본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편년」, 『쟁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물질문화 편년』, 제11회 매산기념강좌,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김재선·엄애경·이경, 1998, 『한글 동이전』, 서문문화사
- 김재윤, 2007, 「단결-고로우노브까문화의 기원 - 토기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호
- 노혁진, 2004, 「중도식토기의 유래에 대한 일고」, 『호남고고학보』, 19호
- 박경신, 2012,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취락 구조」, 『고고학』, 11-2호
- 박순발, 1989, 「한강유역 원삼국시대토기의 양상과 변천」, 『한국고고학보』, 23호
- _____, 1992, 「백제토기의 형성과정」, 『백제연구』, 23호
- _____, 1993, 「청동기 . 철기시대」, 『한강유역사』, 일지사
- _____, 1996,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 - 중도유형문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26호
- _____, 1997, 「한강유역의 기층문화와 백제의 성장과정」, 『한국고고학보』, 36호
- _____, 2001a,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 _____, 2001b, 「심발형토기고」, 『호서고고학』, 4/5호
- _____, 2001c, 「마한 대외교섭의 변천과 백제의 등장」, 『백제연구』, 33
- _____, 2004a, 「백제토기 형성기에 보이는 낙랑토기의 영향」, 『백제연구』, 40호
- _____, 2004b, 「요령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 충청문화재연구원

- _____, 2005, 「토기상으로 본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편년」, 『호남고고학보』, 21호
- _____, 2009, 「경질무문토기의 변천과 강릉 초당동유적의 시간적 위치」, 『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박중국, 2011, 「원삼국기~백제한성기 중부지역 뫼자형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고고학』, 10(1)호
- _____,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1호
- 송만영, 1999,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의 편년적 기초」, 『한국고고학보』, 41호
- _____, 2003, 「중부지방 원삼국 문화의 전개 과정과 한예 정치체의 동향」, 『강좌 한국고대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_____, 2009, 「강릉 경포호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특징과 편년」, 『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_____, 2010a, 「육각형 주거지와 한성기 백제 취락」, 『한국고고학보』, 74호
- _____, 2010b,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취락」, 『마한·백제 사람들의 주거와 삶』, (국립공주박물관·중앙문화재연구원 편), 에픽
- _____, 2013a,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_____, 2013b, 「중도식 주거 문화권의 주거지와 취락」, 『송실사학』 31호
- 심재연, 2007a, 「강원도 중도식토기 문화에 보이는 동북지방 요소」,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7b, 「남한강 중상류지역의 철기시대 문화의 특징 - 최근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 6-2호
- _____, 2008, 「강원 영동지방 철기시대 상한과 하한」, 『동북아 문화연구』, 제16집
- _____, 2009, 「한성백제기의 영동·영서」, 『고고학』, 8-2호
- _____, 2010, 「한성백제기 한강 중·상류 지역의 적석층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39호

- _____, 2011, 「경질무문토기의 기원 -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고학』, 10-1호
- 안승모, 2013,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 오세연, 1995,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19호
- 유은식, 2006,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와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에 대한 일 연구」, 『송실사학』, 19호
- _____, 2007, 「토기의 제작기법으로 본 연해주와 강원도 자료 검토 - 연해주 불로치가 유적 출토 토기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9, 「연해주 크로우노프카 토기와 중부지방 중도식무문토기의 제작기법 비교」, 『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 (환동해고고학연구회 편), 주류성출판사
- 이성주, 2013, 「철기시대 東北亞 제 지역사회의 技術革新과 社會變動」, 『선사와 고대』, 38호
- 이성주·강선옥, 2009, 「초당동유적에서 본 강릉지역의 신라화 과정」, 『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이준정, 2013 「한반도 선사·고대 동물 사육의 역사와 그 의미」,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 이준호, 2009, 「'중도식토기'의 개념과 그 상대편년론에 대한 재검토」,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한강 I』, 서울경기고고학회
- 정인성, 2011, 「중심과 주변의 관점에서 본 진·변한과 와질토기의 성립」, 『호남고고학보』, 20호
- 최성락, 2005, 『고고학 입문』, 학연문화사
- 최병현, 1998, 「원삼국토기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고학보』, 38호
- 한지선, 2005, 「백제토기 성립기 양상에 대한 재검토」, 『백제연구』, 41호
- _____, 2013, 「한성백제기 취락과 토기유물군의 변천양상」, 『중앙고고연구』, 12호
- 홍지윤, 오준혁, 김규홍, 2008, 「원삼국시대 주거지 축조과정과 상대편년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야외고고학』, 4호

- N.G. 아르제미예바, 2011, 『연해주 여진의 주거 건축』 (정석배 러시아어에서 옮기), 학연문화사
- Bale, M.T., 2014, 「경제만이 아니다 – 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실험적·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Subbotina, A.L., 2007, 「연해주, 두만강유역, 영동·영서 지역의 생계경제에 대한 차이 연구」,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9, 「연해주, 두만강 유역, 영동, 영서지역의 생계경제에 대한 차이연구 (pp. 249-267)」, 『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 주류성출판사
- Aikens, C.M., Zhushchikhovskaya, I.S., Rhee, S.N., 2009, Environment, Ecology, and Interaction in Japan, Korea and the Russian Far East, *Asian Perspective*, **48**(2); 207-248
- Armayer, O.K., 1978, Did Herodotus ever go to the Black Sea?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82: 45-62
- Barrett, J.C.,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An Archaeology of Social Life in Britain, 2900-1200 BC*, Oxford; Blackwell
- Best, J., 2006, *A History of the Early Korean Kingdom of Paekch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Binford, L.R., 1962, Archaeology as anthropology, *American Antiquity*, **28**(2); 217-225
- _____, 1965, Archaeological Systematics and the Study of Culture Process, *American Antiquity*, **31**(2); 203-210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lated by R. 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meister, S., 2000, Archaeology and Migration: Approaches to an Archaeological Proof of Migration, *Current Anthropology*, **41**(4); 539-567
- Byington, M.E., 2009, The Account of the Han in the *Sanguozhi* – an annotated translation, in *Early Korea (Vol 2): The Samhan Period*

- in Korean History* (ed. M. Byington), pp. 125-152, Early Korea Project,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Seoul
- Childe, V.G., 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 Childs, S.T., 1991, Style, technology, and iron smelting furnaces in Bantu-speaking Afric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0**; 332-359
- Clarke, D., 1978, *Analytical Archaeology* (2nd Ed. Revised by B. Chapman), Methuen & Co. Ltd.; London
- Crumley, C.L., 1995, Heterarchy and the Analysis of Complex Societies, *Archae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6**; 1-5
- DeMarrais, E., 2013, Understanding Heterarchy: Crafting and Social Projects in Pre-Hispanic Northwest Argentina,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23**:3, 345-362
- Dobres, M-A., 2000, *Technology and Social Agency: outlining a practice framework for archaeology*, Oxford; Blackwell
- Glassie, H., 1975, *Folk Housing in Middle Virginia: a structural analysis of historic artifacts*,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_____, 1990, Vernacular Architecture and Society, in *Vernacular Architecture: paradigms of environmental response* (ed. M. Turan), Aldershot; Avebury
- Gosden, C., 2005, What do objects want?,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2**(3); 193-211
- Gregory, D., Urry, J., 1985, Introduction. In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eds. D. Gregory and J. Urry). Basingstoke: Macmillan, pp. 1-8
- Hegmon, M., 1992 Archaeological Research on Styl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517-536
- Hartog, F., 1980, *The Mirror of Herodotus*. Translated by J. Lloyd (1988).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dder, I., 1982, *Symbols in Action: ethnoarchaeological studies of material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_____, 1986, *Reading the P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der, I., Hutson, S., 2003, *Reading the Past* (3r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tson, S.R., Markens, R., 2002, Rethinking Emic Pottery Classification, *Kroeber Anthropological Society Papers*, **88**; 8-27
- Hwang, K.M., 2010, *A History of Kore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Ingold, T., 2013, The Maze and the Labyrinth: Reflections of a Fellow-Traveller, in *Relational Archaeologies: humans, animals, things* (ed. C. Wat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45-249
- Kim, B-J., 2013, Lelang Commandery and Han China's Commandery-Based Rule, in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 (ed. M. Byington),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 Lee, S., 2013, The Samhan, Ye, and Wa in the Time of the Lelang and Daifang Commandaries, in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 (ed. M. Byington),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 Johnson, M., 1993, *Housing culture: traditional architecture in an English landscape*, London; UCL Press
- Johnson, M., 1999, *Archaeological Theory*, Blackwell; Oxford
-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Ju, B.D., 2009, Problems Concerning the Basic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the Samhan, In *Early Korea (Vol. 2): The Samhan Period in Korean History* (Ed. M. Byington), pp. 95-122, Early Korea Project,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Seoul
- Lemmonier, P., 1992, *Elements for an anthropology of technology*, Ann Arbor,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ichigan
- Martin, A.M., 2013, *Archaeology Beyond Postmodernity: a science of the social*, AltaMira Press; Lanham

- Mauss, M., 2006[1935], *Techniques of the Body*, in *Marcel Mauss: Techniques, Technology and Civilisation* (ed. N. Schlanger), New York; Durkheim Press, pp. 77-95
- Miller, D., 1985, *Artefacts as Categories: A Study of Ceramic Variability in Central In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_____, 2005, *Materiality: An Introduction*, in *Materiality* (ed. D. Mill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1-50
- Myres, J.L., 1953, *Herodotus: Father of History*. Oxford: The Clarendon Press
- Nelson, S., 1995, The Politics of Ethnicity in Prehistoric Korea, In *Contemporary Archaeology in Theory: The New Pragmatism (2nd Edition)* (ed. R. Preucel and S. Mrozowski (2010), pp. 290-300, Wiley-Blackwell; Maldan, MA
- Pader, E.J., 1988, Inside Spatial Relations, *Architectural Behaviour*, **4**(3); 251-267
- Pai, I.P., 2000,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Park, J., 2011, A modern pollen-temperature calibration data set from Korea and quantitative temperature reconstructions for the Holocene, *The Holocene*, **21**(7); 1125-1135
- Pfaffenberger, B., 1992, Social Anthropology of Techn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491-516
-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Rautman, A.E., 1998, Hierarchy and heterarchy in the American Southwest: a comment on McGuire and Saitta, *American Antiquity*, **63**(2); 325-333
- Rogers, R.J., 1995, Tribes as heterarchy: A case study from the prehistoric southeastern United States, *Arche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6**(1); 7-16

- Sackett, J.R., 1982, Approaches to style in lithic archeolog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 59-112
- Shanks, M., Tilley, C., 1987, Re-constructing Archaeology: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tark, M.T., 2003, Current Issues in Ceramic Ethnoarchaeology, *Journal of Archaeological Research*, **11**(3); 193-242
- Stark, M.T., Clark, J.J., Elson, M.D., 1995, Causes and Consequences of Migration in the 13th Century Tonto Basi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4**; 212-246
- Trigger, B., 2006,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Upton, D., 1996, Ethnicity, authenticity, and invented traditions, *Historical Archaeology*, **30**(2); 1-7.
- Watts, C., 2013, Relational Archaeologies: Roots and Routes, in *Relational Archaeologies: humans, animals, things* (ed. C. Wat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20
- Wiessner, P.,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9**; 253-276
- Wobst, H.M., 1977, Stylistic behaviou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 (ed. C.E. Cleland),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y
- Zedeño, M.N., 2008, Bundled worlds: The roles and interactions of complex objects from the North American plain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5**(4); 362-378
- _____, 2013, Methodological and Analytical Challenges in relational Archaeologies: A View from the Hunting Ground, in *Relational Archaeologies: humans, animals, things* (ed. C. Wat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7-134
- Zhushchikhovskaya, I.S., 2013, Red and Black: 'нарядный' (Naryadn'iy) Ware of the Palaeometal Period of southern Russian Far East, *The Old Potter's Almanack*, **18**(1); 10-16

보고서

- 강릉문화재연구소, 2007, 『春川 牛頭洞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2012, 『江陵 柄山洞遺蹟』
-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0, 『江陵 草堂洞 古墳群』
_____, 2011, 『東海 松亭洞聚落 I』
_____, 2012, 『東海 松亭洞聚落 II』
_____, 2013, 『東海 松亭洞 聚落 III』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 草堂洞 遺蹟 I』
_____, 2006a, 『春川 牛頭洞 707-1,35番地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6b, 『江陵 柄山洞 住居址』
_____, 2008a, 『춘천 울문리 335-4번지 유적』
_____, 2008b, 『江陵 草堂洞 遺蹟 IV』
_____, 2010, 『洪川 哲亭理 II 遺蹟』
_____, 2012, 『春川 牛頭洞 遺蹟 II』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가평 대성리 유적』
- 京機文化財團 ; 삼성에지니어링, 2009, 『加平 大成里 遺蹟』
-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驪州 淵陽里 遺蹟』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風納土城 XIII』
_____, 2013, 『風納土城 XV』
- 국립중앙박물관, 1998, 『驪州 淵陽里遺蹟』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8,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
보고서(철기시대 전기편)』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a, 『江陵 草堂洞 遺蹟 I』
_____, 2007b, 『江陵 草堂洞 遺蹟 II』
_____, 2008a, 『春川 栗文里遺蹟』
_____, 2008b, 『江陵 金津里遺蹟』
_____, 2009, 『동해 송정동 1039-5, 851-6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0, 『東海 松亭洞遺蹟 III』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驪州 生態公園造成敷地内)驪州 淵陽里遺蹟』
한강문화재연구원, 2008, 『원주 동화리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3, 『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Primary Models Related to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s Central Region: presenting an alternative approach

Hari Blackmore

Department of Archeology and Art History

Archae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derstanding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heavily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Jung-do Type Culture’, even by those that eschew the model itself. This specifies that there is a clear and archaeologically visible ethnic division within this region, with the ‘Han(韓)’ occupying the mid-to-lower reaches of the Han River, where Baekje eventually emerges, and the ‘Ye(濊)’ (or Ye-Maek) to the east and northeast, across to the east coast. These groups have traditionally been seen as ‘archaeological cultures’, defined by particular aspects of the material assemblage.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models suggests that there are serious theoretical problems in defining ethnicities and ‘archaeological cultures,’ and that a literal reading of history has led to the erroneous projection of those accounts backwards in time. Accounts of this period can therefore be no more than caricatures of the past situation, with little direct link to the past

peoples. It is also argued that the original 'Jung-do Type Culture' model has framed the further debates and limited research questions and conclusions, with a focus on identifying and tracking ethnic groups rather than on cultural processes within Korea's Central Region.

To remedy these issues a different concept of culture has been set out. This focuses upon human actions, emphasizing regularities in the practices of artefact manufacture and ways of arranging space in settlements or architecture. This is available to archaeologists through contextual, multivariate and relational investigations of the material assemblage. The utility of these approaches is demonstrated through two short case studies, each examining aspects of the Central Region's Proto-Three Kingdoms Period assemblage. These conclude that, (i) that the distribution of pottery with some type of burnishing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凸-shape and 呂-shape architecture; and (ii) that the patterns of hypocaust use at Pungnab Fortress and Gapyeong Daeseong-ri sit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espite sharing some very basic core similarities. These results create multiple new and interesting questions into the organization of this region's Proto-Three Kingdoms Period.

Keywords : Proto-Three Kingdoms Period ; Korea's Central Region ; Jung-do Type Culture ; Contextual Approach ; Relational Approach ; Chul(凸)-Yeo(呂) Shaped Architecture

Student Number : 2013-22432